

곧은 마음으로 살아온 신산한 삶

《천리 도망은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더니》
퍼낸 신봉선 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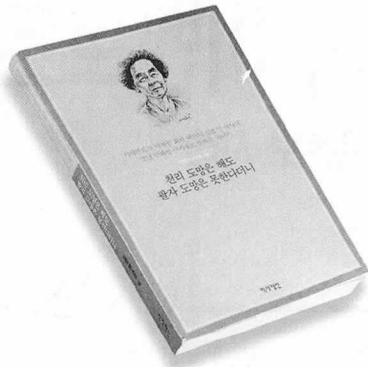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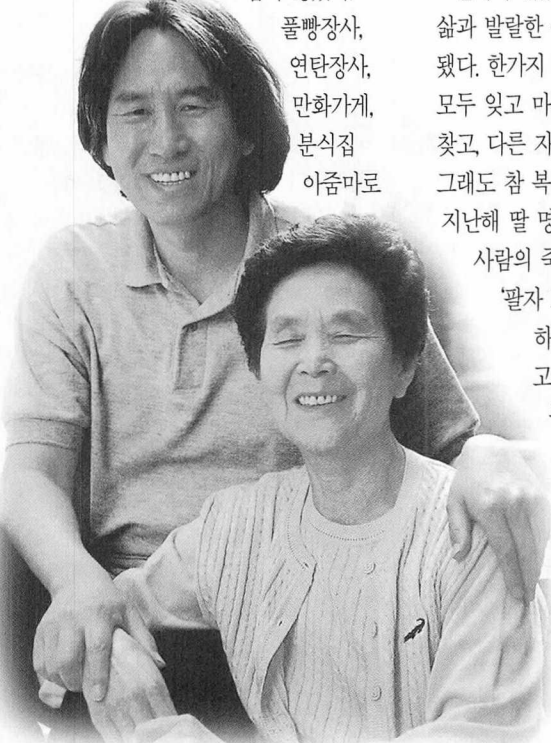
구구절절 신산스럽고, 갈피마다 험겨웠던 삶이 담긴 《천리 도망은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더니》(작가정신)의 작가(?) 신봉선 할머니(68)는 이제 큰 아들인 박재동 화백만큼 유명해졌다. TV에도 나오고, 아들이 그랬던 신문만평보다 더 크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착잡합니다. 작년에 딸까지 앞세우고 나니 이제 덧없는 세월을 산다는 느낌입니다.”

남편의 유언과 아들의 격려에 힘입어 일가친척이나 보자고 쓰기 시작했는데, 책으로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5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고, 떠오르는 얘기들을 조금씩 썼다. 쓰는 동안 사는 일에 치여 부모님과 형제에게 소홀했던 것이 가장 마음에 응어리졌다.

“고마운 사람도 많습시다. 박화백이 대학시험 치렀던 해에 불량만화 단속에 걸린 제게 죄가 없다고 하신 판사님께는 꼭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30여년 동안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남편의 생명을 원망 한점 없이 지키고, 세 아이를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풀빵장사,
연탄장사,
만화가게,
분식집
이준마로



불량만화 단속에 쫓기고, 철거반에 독촉을 받는 세월이었다.

“박화백이 신문사로 갈 때, 만화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푸대접받았는데 하필 만화가나 싶었어요.”

아이가 만화를 빌려왔다고 장사미천이었던 책을 태우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던 사람, 환자에게 못할 짓까지 한 만화구역장의 횡포, 음식점사는 열심히 하면 맛있다, 잘 먹었다 좋은 말을 듣지만 만화장사는 아무리 바르게 해도 인정받지 못했기에 생각하면 끔찍했다.

“책을 보니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군요. 이렇게 불효를 했다 싶어서요.”

박화백이 말을 거든다. 중학교 때 전교 꼴찌를 해 부모님을 실망시켰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뻔한 집안형편임에도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속상하게 해 드렸다. 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꿈을 잇는가 했더니 난데없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만화가가 됐으니.

“그때는 공부만 하는 게 어쩐지 이기적이고 치사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실패와 낙오의 체험이 제게는 득이 됐죠.”

언제나 밝았던 어머니의 얼굴은 구김없는 삶과 발랄한 상상력, 곧은 마음의 바탕이 됐다. 한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일은 모두 잊고 마는 박화백을 받쳐줄 배필을 찾고, 다른 자식도 좋은 짝을 만난 후 그래도 참 복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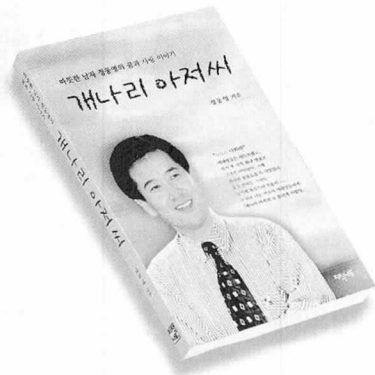
지난해 딸 명이를 잃었다. 유난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많이 겪었으니 제목대로 ‘팔자 도망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신봉선 할머니에게서 고생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풍상이 살을 발라갔을 망정 환한 미소와 맑은 피부, 곳곳 몸의 선은 정말 굵다. 몸이 힘들어도 바르게 살고자 했던 마음 때문일 게다.

— 이현주 기자

잊을 수 없는 사람과 사건과의 만남

《개나리 아저씨》 퍼낸 정동영씨



“《개나리 아저씨》, 제목이 뭐 이래?” 책을 받아든 국회의원의 출입기자들은 대개 이런 반응이었다. 자연스런 일이었다. 제목뿐만 아니라 노란빛이 감도는 표지에 정치와는 무관한 내용까지 일반적인 정치인의 책과는 달랐으므로. 하지만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관심을 끈 까닭은 바로 이런 차별성에 있다.

‘92년부터 준비했어요. 18년 방송생활을 정리하고 싶었죠. 그러던 차에 96년 정치에 입문하며 기왕에 써온 글도 있으니 내 삶의 매듭을 짓게 된 거죠.”

잘 알려진 부인과의 연애담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개나리 아저씨》(작자나무)의 주된 내용은 방송기자 시절에 만났던 사람과 경험했던 굵직한 사건들이다. 문화방송에 들어간 이듬해 벌어진 5·18 광주항쟁에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까지 80, 90년대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사건의 현장에서 젊은 그가 느꼈던 분노와 좌절, 회한과 다짐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삼풍백화점 사고현장에서의 느낌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난 3,40년간 건설해온 우리 사회구조가 총체적으로 붕괴한 셈이죠. 그 때 느꼈던 불길한 예감도 저를 정치 쪽으로 이끈 한 계기였습니다.”

1952년 최초로 앵커맨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미국 CBS의 월터 크롱카이트를 꿈꾸던 그가 삶의 방향을 바꾼 까닭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방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송인이 대거 출마했던 지난 15대 총선에서 그는 야당후보로 나서 전국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기자로서 크롱카이트를 꿈꿨다면 이제 정치인이 된 그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의사당에 로텐다홀이라고 있습니다. 그 곳에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동상을 위해 좌대가 동서남북 4곳에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이동녕 선생의 동상만 있어요.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정치불신감을 치유하고 의회정치의 본모습을 세우고 싶은 욕심은 당연하죠.”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그만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도록 배려한 아버지는 소중했고 그런 기억은 고스란히 이 책에 담겼다. 하지만 5월 5일에도 전주에 내려가 지역구 활동을 해야 했던 그를 아이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아내와의 연애담이 실린 책을 내고 보니, 제 아버 본 따서 연애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생각대로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복돋아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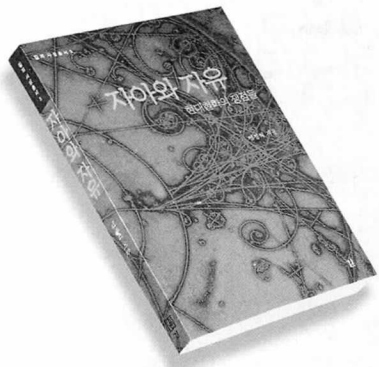
지금 그의 바람은 한가하게 드러누워 소설을 읽는 일이다. 《전환시대의 논리》·《삼국지》·《남부군》·《태백산맥》 등이 기억이 남는다. “고등학생 때만 해도 문학지망생이었던 거든요.” 두번째 책을 쓴다면 무슨 내용이 실릴까?

“야당대변인 시절의 이야기를 묶고 싶습니다. 권권교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선거과정의 우여곡절도 참 많았죠. 제 입장에서 본 권권교체의 과정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 김연수 기자



풍요로운 삶을 위한 사유의 출발

《자아와 자유》 펴낸 엄정식 교수



“철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전제도 재능도 필요 없고, 오직 포기하지 않는 자기수련과 사색의 성실성만 요구될 뿐이다.”

독일의 철학자 빈델란트의 말이다. 인문학의 위기담론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학문하는 이가 금과옥조로 삼을 만한 언명이다. ‘자아’라는 철학적 주제를 일관되게 천착해온 서강대 엄정식 교수(57)의 철학하는 태도 역시 이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에 펴낸 《자아와 자유》(길)도 그 연장선상에 놓인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자아는 세상을 파악하는 인식의 주체입니다. 이 자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자유의 문제가 등장하죠. 현대인들은 ‘외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 몰두하면서 자아가 황폐해졌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내적인 억압과 충동으로부터의 자유’도 동시에 추구해야 해요.”

현대철학의 사유틀로 자아와 자유의 문제를 탐구한 이 책은 개인의 자유가 늘어나면서 자아가 상실되는 역설적 상황이 사유의 출발점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자유를 추구할 때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주제. 특히 정보화사회의 가상공간에서 출현한 ‘사이버 자아’는 결국 ‘사이버 자아’라고 비판하면서 자아개념의 유효성을 밝힌 것은 탁월한 안목이다.

“철학은 자기정체성을 묻는 유일한 학문이에요. 중세시대에 철학은 신학의 시녀로서 종교적 진리를 정당화했지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적 실증주의의 도그마에 빠져 자연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경험과학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러셀이 말한 것처럼 신학과 과학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현대철학의 위기는 과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언어가 객관적 존재를 표상할 수 있다는 언어의 전통적 기능이 의심받기 시작하면서 초래됐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교수는 신흐르의 학파를 계승한 ‘신흐르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신흐르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원리로 삼는 독단적 합리주의와는 달리 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해서 이성과 과학의 긍정적 기능을 수용하자는 것이죠”

엄교수는 포퍼·하버마스·퍼트남 등의 서양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적 전통에서도 신흐르주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컨대 성과 속을 종합한 원효, 교와 선을 양립시켰던 지눌, 이와 기를 보완관계로 승화시킨 율곡, 그리고 이론과 실천을 동일시했던 다산 등의 사상이 신흐르주의의 전통을 입증해 준다는 것이다.

엄교수의 궁극적인 꿈은 한국 철학사상사를 다시 쓰는 것. 이 책은 대장정의 서막일 뿐이다. 그 사전작업으로 오는 6월에 자아개념을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탐구한 《민족적 자아와 민족문화》를 펴낼 예정이다. 철학적 자아에서 출발해 사회적 자아, 인문학적 자아를 거쳐왔던 그가 조국에 바치는 ‘민족적 자아’의 서사시다.

— 박천홍 기자

따뜻한 세상 만든 포기할 수 없는 자식사랑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이야기》 펴낸 우갑선씨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소중하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이야기》(다른세상)는 신체적 결핍의 아픔을 가진 아이와 어머니가 세상을 개척하는 눈물겨운 과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준다. “세상은 결코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난관을 극복하려는 노력 여하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어부터 간호사 생활을 하며 몸으로 익힌 봉사정신 때문일까. 세상을 바라보는 저자 우갑선(45)씨의 따뜻한 시선은 어떤 역경도 녹일 수 있을 듯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포병소위였다가 사고를 당해 1급 척수장애인이 된 이운봉씨를 사랑하면서부터. 갖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결혼한 부부는 10여년 만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딸은 손가락 두개, 다리도 기형인 선천성 1급 장애아였다.

“의사와 친척까지 그러더군요. 커서도 고통만 받을 것이라고요.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시키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났지만 성장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 세상 때 다리마저 잘라낸 아이를 지켜보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포르투갈에서 기적의 성녀로 불리는 ‘희아신다’에서 따온 이름을 가진 딸 ‘희아(주몽중학교 1학년)’는 기적처럼 고통을 이겨냈다.

“건강을 찾은 아이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아노학원을 갔지요. 그런데 모두들 거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싫어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좌절했다. 게다가

그녀까지 암에 걸렸으니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는 그녀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조미경씨가 가까이 받아준 것. 그때부터 아이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다. 연필조차 힘겹게 움켜쥐는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선생님께서 헌신적으로 가르쳤지만,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즐기기가 싫더니 어느날 ‘나비야 나비야’를 완주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전국학생음악연주평가 등에서 수상할 만큼 능숙하게 피아노를 친다. 또한 가족은 최근 CNN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성공담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모두 얻은 듯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한 아이와 그 아이를 세상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장한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은 셈이다.

“커서요, 피아노하고 작곡공부 열심히 해서요, 아픈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줄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배풀며 살겠다는 아이의 마음은 어머니를 닮았다. 눈부신 봄햇살 아래 해맑게 웃는 모녀에게서 더없이 따뜻한 세상을 느낄 수 있다.

— 오완진 기자

